

# 한·중 수교 30년, 농식품 교역 동향과 협력 과제

김경필·남경수·이현근·채상현·염정완·명수환·곽혜선·김두희

## 요약

2021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이며, 그동안 전체 무역 규모는 약 47배, 농업 부문 교역액은 7.6배 성장함

- 중국은 한국과 최근 거리에 위치하면서 경제성장이 빨라 한국 농식품 수출 성장에 매우 유리하면서도, 농산물 생산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어서 국내 농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함.
- 한·중 전체 교역액은 수교를 맺은 첫해에 64억 달러에서 2021년 3,000억 달러 수준으로 47배 성장했으며, 농업 부문 교역액은 1995년 8.6억 달러에서 2021년 65.4억 달러로 7.6배 성장함.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과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21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일정 수준을 유지함

-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021년 52억 달러로 연평균 7.6%씩 증가했지만, 중국산 비율은 2007년 이후 하락추세임. 한국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2021년 13억 달러로 연평균 10.7%씩 증가했고, 중국의 비율은 16% 내외 수준을 유지함.
- 한·중 FTA 발효 전까지 확대되던 농식품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FTA 발효 후 5년간 35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 상태를 보임.

중국산 농산물은 대부분 양허가 제외되어 관세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국내 및 중국 내 수급 여건에 따라 수입량이 변할 수 있어서, 국내산 농산물 수급 조절과 중국 내 생산 동향 점검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김치와 고추의 경우 국내산 생산량이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입량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품목임.
- 중국산 마늘의 경우 최근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입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파는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중국의 경우 한·중 FTA로 한국산 농산물 관세 철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품질 농산물과 농식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산 농산물 및 농식품의 對중국 수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홍삼, 샤인머스캣과 생우유 등은 중국 내 유통채널 다양화 및 건강 소비 유행, 프리미엄 과일 및 안전한 축산물 수요 증가로 對중국 수출량이 증가하거나 증가한 바 있음.
- 중국 내 소비자들의 농식품 수요변화를 지속해서 관찰하면서 향후 수출을 증대할 기회를 포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중국이 시행한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의 한·중 간 교역상품에 신속적인 적용방안과 중국의 코로나19에 따른 검역 기준 및 통관절차의 탄력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 한국은 스티커 및 꼬리표로 식품표시 부착을 허용하므로 중국의 한국산 활력캔디, 효소, 홍삼 등 건강 기능 식품류의 라벨 부착 요건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검역 및 통관절차 강화로 수출 통관 소요 시간이 늘어나는데, 신선우유, 홍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의하여 우선 통관 등 검역 및 통관 기간을 줄이는 협력 방안이 필요함.

# 01

## 서론

중국은 한국 농식품 수출에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한국 농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임

- 중국은 한국과 최근 거리에 위치하면서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한국 농식품 수출 성장에 매우 유리한 국가임.
- 한편,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와 생산 여건이 비슷하여 유사한 품목 및 품종이 많고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어서 국내 농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함.

한·중 전체 무역 규모는 수교 30년 동안 약 47배 성장하였으며, 농업 부문 교역액은 7.6배 성장함

- 1992년 8월 한·중 수교를 맺은 후 3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한·중 전체 무역액은 수교를 맺은 첫해에 64억 달러에서 2021년 3,000억 달러 수준으로 47배 성장하였으며, 對중국 전체 수출 규모도 2021년 1,386억 달러로 60배 이상 성장함.
- 한·중 농업 부문 교역액은 1995년 8.6억 달러에서 2021년 65.4억 달러로 7.6배 성장하였음. 한국의 농식품 무역수지적자는 39억 달러 수준임.

한·중 농식품 교역량은 경쟁력 여건, FTA 체결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변동되기도 함. 따라서 양국 간 교역 과정에 발생하는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논의함으로써 교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가 2015년 12월 발효되었으나 교역은 부진한 편이고, 사드(THAAD) 배치 서명(2016년)에 따른 한한령(한류제한령) 조치로 한류열풍 퇴조, 대규모 유통업체 철수 등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됨. 한편으로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 중국 내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과 식품 수요 확대로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도 있었음.
- 최근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 물류 여건 악화 등으로 물류비 상승, 수입식품 검사제도 등 수입 유통 과정 관리강화로 한국 농식품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함.

〈표 1〉 한·중 농식품 교역 관련 주요 이슈

일자	내용
1992년 8월	한·중 수교 시작
2000년 6월	한국의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발동(마늘 파동)
2007년 12월	쌀, 밀, 옥수수 등 84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13%) 폐지
2008년 1월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작물 원료 및 제분제품 57개 품목에 수출관세(5~25%) 잠정 부과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등 제분제품에 수출쿼터제 실시
2008년 9월	중국 내 유제품 멜라민 오염 사건(멜라민 파동)
2012년 5월	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최
2014년 5월	중국의 수입산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 시행
2014년 11월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
2015년 4월	한·중 포도 수출 검역 협상 타결, 對중국 포도 수출 시작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2017년 2월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통관 절차 강화
2018년 7월	중·미 무역분쟁 시작(중↔미 양국 제품에 25% 관세 부과)
2019년 3월	한국의 중국 푸젠성 당근 수입 금지 조치 시행
2020년 7월	중국 내 수입식품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확인서 요구
2022년 1월	중국의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라벨표시 규정) 시행 중국의 해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전 품목 확대
2022년 7월	중국의 수입 콜드체인 식품 방역 규제 강화

자료: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 검색일: 2022. 11. 7.;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board/boardList.do>). 검색일 2022. 11. 4.; 전형진(2008).

본 이슈페이퍼의 목적은 한중 수교 이후 농식품 교역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농식품 교역 측면에서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임

- 이슈페이퍼 작성을 위해 문헌 및 온라인 자료 정리, 통계자료 분석(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한·중 교역전문가 및 수출입 업체 자문 등의 방법을 사용함.

## 02

##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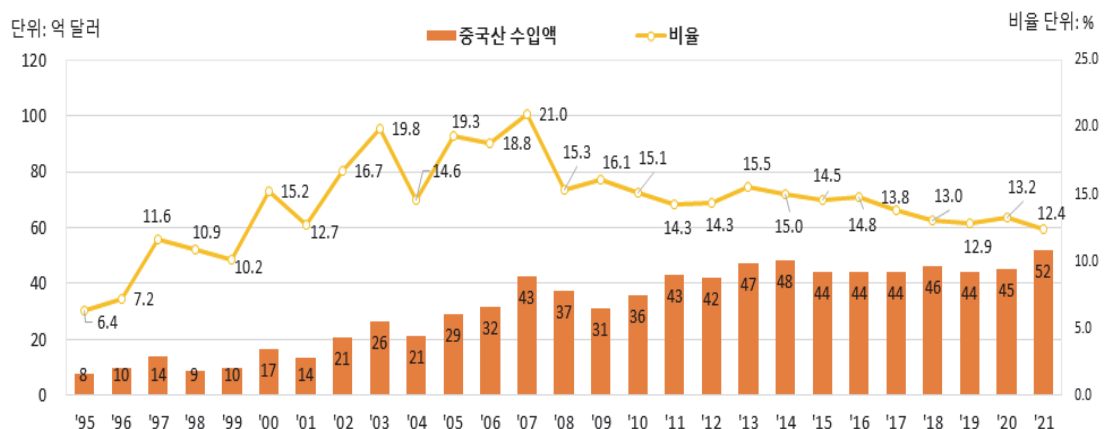
## 2.1. 한·중 농식품 교역 개요

2.1.1. 한·중 농식품 전체 교역 동향<sup>1)</sup>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995년 8억 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7.6%씩 증가하여 2021년 52억 달러에 이릅니다.

-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세계 교역 확대 추세에 따라 2007년 43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2008~2009년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함. 2010년 이후로는 연간 4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함.
- 2021년 수입액(52억 달러)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식품 원료 수요가 회복되고, 생산비와 물류비 인상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전년 대비 14.4% 증가함.
- 한국의 농식품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6.4%에서 2007년 21.0%로 최고치에 도달함. 이후 ASEAN, EU와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이 증가하면서 중국산 비율이 점차 감소해 2021년에는 12.4% 수준으로 하락함.

〈그림 1〉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과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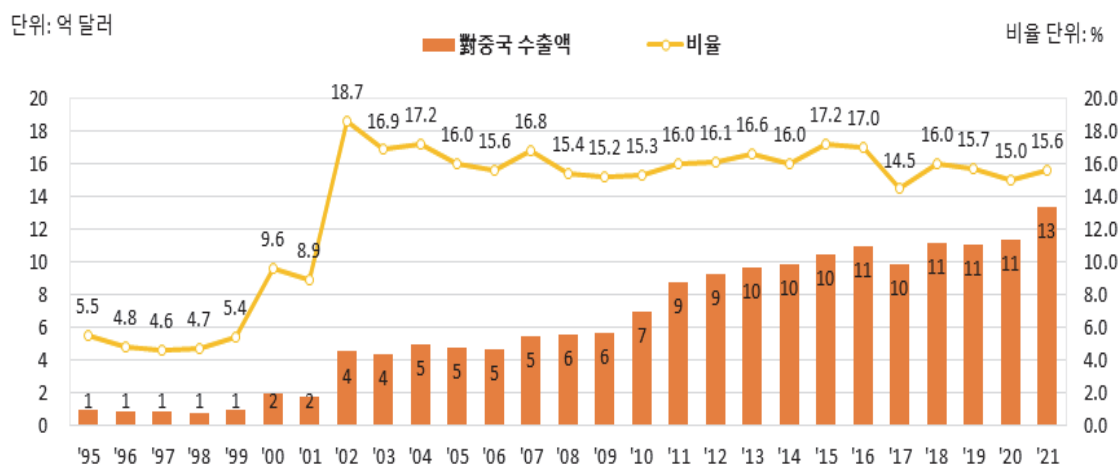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1) 농식품 품목은 신선농산물과 1차 가공식품, 가공식품 등 농식품 전체를 포함하는 범위임.

한국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1995년 1억 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10.7%씩 증가했으며, 2021년 수출액은 13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함

- 한국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드라마 ‘대장금’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 한국식품 수요 확대와 국내 유통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 노력 등으로 2016년까지 빠르게 증가함.
- 2017년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및 한중 관계 악화 영향으로 對중국 농식품 수출이 감소함. 이후 중국의 한류제한령(한한령) 완화 분위기 등으로 다시 증가함.
-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5.5%에서 2002년 18.7%까지 상승한 이후 16%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2〉 한국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과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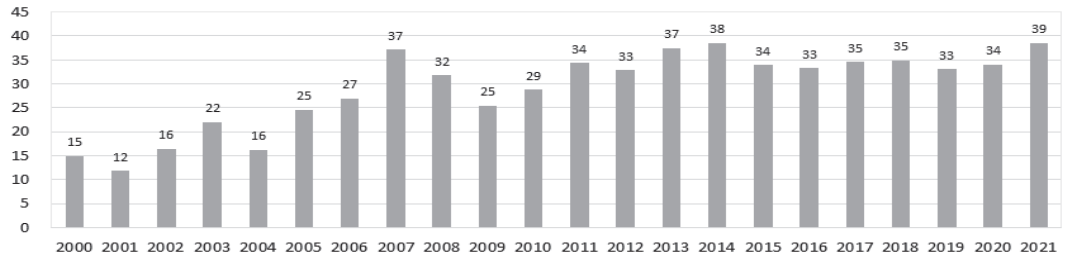
주: 1995~1999년 수출액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2a). 2021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 및 통계 참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2a).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전까지 확대 추세를 보이던 한·중 간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FTA 발효 후 약 5년간 정체 상태를 보인 이후 최근에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임

- 한·중 농식품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FTA 발효 직전인 2014년 38억 달러에서 2015년 34억 달러로 완화됨. 2021년 수입액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치로 늘어남.
- 한·중 FTA 발효 후 2020년까지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과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의 전년 대비 변화율 평균값은 각각 -0.9%와 2.6%로 변화폭이 크지 않음.

〈그림 3〉 한국의 對중국 농식품 무역수지적자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2021년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52억 달러로 2000년 대비 209.4% 증가했으며, FTA 발효 전후 중국산 수입액 변화는 크지 않은 편임

- 한·중 FTA 발효 후 6년(2016~2021년) 평균 수입액은 46억 달러로 FTA 발효 전 6년(2010~2015년) 평균(43.5억 달러) 대비 5.9% 증가함.
- 2021년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 비율은 12.4%로 2000년(15.2%) 대비 2.8%p 하락했고, FTA 발효 후 6년(2016~2021년) 평균 비율은 13.3%로 FTA 발효 전 6년(2010~2015년) 평균 비율(14.8%)보다 1.5%p 하락함.

2021년 한국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13억 4천만 달러로 2000년 대비 603.4%의 큰 폭으로 증가함

- 한·중 FTA 발효 후 6년(2016~2021년) 평균 수출액은 11억 3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 6년(2010~2015년) 평균(9.2억 달러) 대비 23.1% 증가함.
- 2021년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 비율은 15.6%로 2000년(9.6%)보다 6.0%p 상승했으나, FTA 발효 후 6년(2016~2021년) 평균 비율은 15.6%로 FTA 발효 전 6년(2010~2015년) 평균(16.3%)보다 0.7%p 하락함.

〈표 2〉 한국의 對중국 농식품 교역 변화

단위: 억 달러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변화율(% , %p)		
	2000년	16년 평균('00-'15)	6년 평균('10-'15)	6년 평균('16-'21)	2021년	(E-A)/A *100	(D-B)/B *100	(D-C)/C *100
	(A)	(B)	(C)	(D)	(E)			
수입액	16.8	33.2	43.5	46.0	52.0	209.4	38.5	5.9
비율(%)	15.2	15.9	14.8	13.3	12.4	-2.8	-2.6	-1.5
수출액	1.9	6.2	9.2	11.3	13.4	603.4	83.3	23.1
비율(%)	9.6	15.8	16.3	15.6	15.6	6.1	-0.2	-0.6
무역수지	-14.9	-27.1	-34.3	-34.7	-38.6	159.0	28.3	1.3

주 1) 기간별 평균은 기간별 산술 평균을 의미하며, 비율의 변화율은 실제로 변화분(%p)을 의미함.

2) 수입액과 수출액에서의 비율은 기간별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과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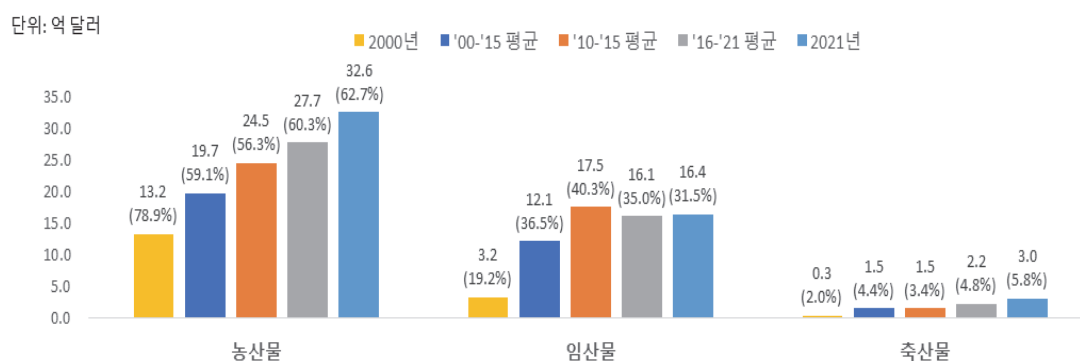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 2.1.2.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부류별·품목별 수입액 동향<sup>2)</sup>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에서 부류별 비율은 2021년 기준 농산물이 62.7%로 가장 크고, 그다음은 임산물(31.5%)과 축산물(5.8%) 순임(〈그림 4〉)

- 2021년 농산물 수입액 비율(62.7%)은 2000년 대비 16.2%p 하락했으며, 임산물과 축산물 비율은 각각 12.4%p와 3.8%p 상승함.
- FTA 발효 후 6년 평균 농산물(60.3%)과 축산물(4.8%)의 수입액 비율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 대비 각각 4.0%p와 1.4%p 상승했으며, 임산물(35.0%)은 5.4%p 하락함.

〈그림 4〉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부류별 수입액 변화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을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액이 증가 추세를 보임(〈표 3〉)

- 2021년 농산물 수입액(32.6억 달러)은 2000년 대비 146.0%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FTA 발효 후 6년(2016~2021년)간 농산물과 축산물 평균 수입액은 각각 27억 7천만 달러와 2억 2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 6년(2010~2015년) 평균 대비 각각 13.3%와 50.5% 증가함.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농산물 부류에 속하는 기타 채소, 기타 버섯과 가공식품 중심으로 증가함

- FTA 발효 후 6년 평균 기타 채소(1억 6천만 달러)와 기타 버섯(2,704만 달러) 수입액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각각 78.8%와 178.6% 증가함.
- FTA 발효 후 6년 평균 김치(1억 4천만 달러)와 기타 소스제품(7,556만 달러) 수입액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각각 21.5%와 31.7% 증가함.

2) 농식품 부류별·품목별 교역 동향은 HS 코드별 교역자료 수집이 가능한 2000년부터 제시함.

중국산 신선 또는 1차 가공 농식품에서 고추, 김치와 양파 수입액은 증가했지만, 참깨, 당근과 마늘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고추 수입액(1억 6천만 달러)은 2000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입액(1억 4천만 달러)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7.2% 증가함.
- 2000년 20만 달러 수준이던 김치 수입액은 2021년 1억 4천만 달러로 2000년 대비 700배 이상 증가했으며,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입액(1억 4천만 달러)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21.5% 증가함.
- 2021년 양파 수입액(2,251만 달러)은 2000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입액(2,461만 달러)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2.0% 증가함.
- 2021년 참깨 수입액(6,992만 달러)은 200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입액(5,925만 달러)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10.7% 감소함.
- 2021년 당근 수입액(4,663만 달러)은 2000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으나,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입액(4,580만 달러)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4.9% 감소함.
- 2021년 마늘 수입액(4,100만 달러)은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입액(5,782만 달러)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9.1% 감소함.

〈표 3〉 한국의 중국산 주요 농식품 수입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변화율(%)		
	2000년	16년 평균('00-'15)	6년 평균('10-'15)	6년 평균('16-'21)	2021년	(E-A)/A *100	(D-B)/B *100	(D-C)/C *100
	(A)	(B)	(C)	(D)	(E)			
<b>농산물 전체</b>	<b>1,324</b>	<b>1,966</b>	<b>2,448</b>	<b>2,774</b>	<b>3,257</b>	<b>146.0</b>	<b>41.1</b>	<b>13.3</b>
혼합조제식료품	22	109	174	261	330	-	139.8	49.9
기타 채소	21	56	91	163	208	886.0	192.1	78.8
전분박	5	86	164	154	204	-	80.0	-6.0
쌀	37	104	178	146	179	384.1	40.3	-18.3
고추	10	78	127	136	159	-	73.7	7.2
김치	0	71	111	135	141	-	90.3	21.5
기타 소스제품	16	42	57	76	91	455.4	78.0	31.7
개 사료	0	17	32	70	89	-	305.6	117.1
당면	20	43	66	77	86	336.3	80.5	17.2
기타 과일	16	45	57	70	78	392.0	55.6	22.4
기타 한약재	36	42	60	63	71	96.5	50.6	6.1
참깨	26	46	66	59	70	169.2	27.8	-10.7
팥	12	26	42	47	63	404.0	79.3	10.4
기타 채유종실	1	8	16	34	62	-	325.9	108.9
땅콩	21	36	51	49	60	187.2	36.3	-4.5



(계속)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변화율(%)		
	2000년	16년 평균('00-'15)	6년 평균('10-'15)	6년 평균('16-'21)	2021년	(E-A)/A *100	(D-B)/B *100	(D-C)/C *100
	(A)	(B)	(C)	(D)	(E)			
기타 당	1	25	41	45	51	-	82.0	8.4
대두	10	61	69	43	51	429.9	-29.7	-37.6
들깨	5	24	40	40	49	914.4	68.4	1.6
캔디	2	10	17	38	48	-	266.5	127.8
기타 식물성액즙	2	15	28	41	47	-	177.3	49.4
당근	3	32	48	46	47	-	42.5	-4.9
마늘	9	37	64	58	41	350.2	57.1	-9.1
물	0	4	11	50	39	-	-	343.0
맥주	0	4	8	36	37	-	918.9	371.9
기타 버섯	3	5	10	27	34	-	422.8	178.6
포도당	0	9	17	28	32	-	213.8	62.8
배합사료	0	13	26	28	31	-	114.4	8.4
유아용조제식료품	0	0	0	9	28	-	-	-
고구마전분	9	17	26	24	26	193.7	42.9	-6.9
비스킷	6	17	21	26	25	316.3	52.3	26.4
양파	2	14	24	25	23	-	80.1	2.0
<b>임산물 전체</b>	<b>322</b>	<b>1,212</b>	<b>1,754</b>	<b>1,609</b>	<b>1,639</b>	<b>409.3</b>	<b>32.7</b>	<b>-8.2</b>
표고버섯	3	18	38	38	36	-	106.1	-1.4
밤	2	13	19	27	33	-	110.9	44.2
<b>축산물 전체</b>	<b>33</b>	<b>146</b>	<b>146</b>	<b>220</b>	<b>300</b>	<b>797.8</b>	<b>50.8</b>	<b>50.5</b>
기타 양모, 섬유모, 조수모 등	10	69	76	91	108	933.7	31.0	19.1
기타 동물성유지	0	1	2	24	53	-	-	-
젤라틴	0	3	5	18	26	-	520.1	245.2
펄프	2	5	8	13	21	-	175.0	55.9

주 1)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었으며, FTA 발효 전·후 기간별 평균은 산출평균값임.  
 2) 부류별 품목은 2021년 수입액 규모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농산물과 축산물은 2천만 달러, 임산물은 3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목재 및 석제품 제외)을 제시함.  
 3) 변화율에서 증감률이 없거나 1,000% 이상인 품목은 '-'로 표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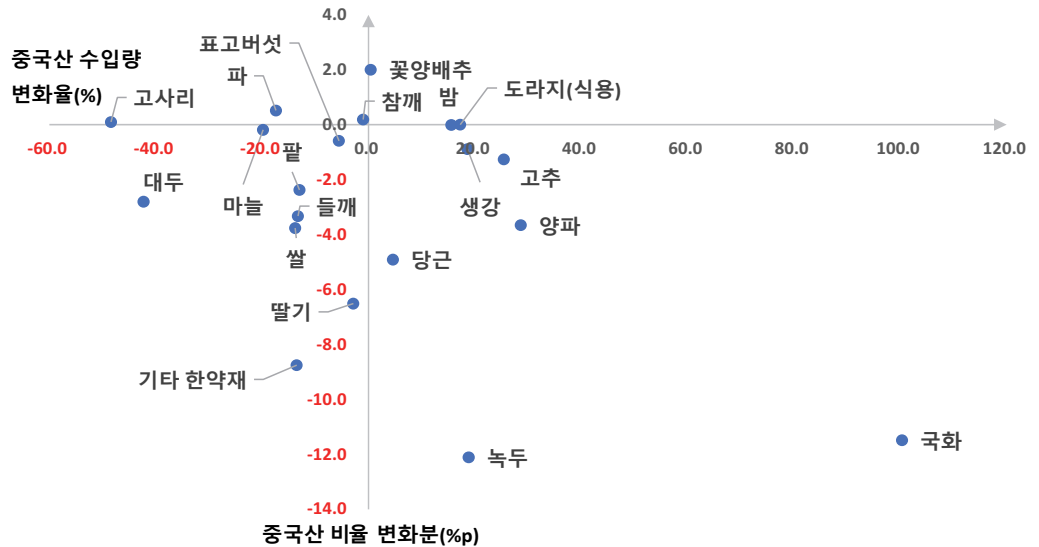
<그림 5>의 제1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량이 증가하고 중국산 비율 상승으로 중국산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제2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량은 증가했지만, 중국산 의존도는 낮아졌음을 의미함. 또한, 제3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량과 중국산 의존도 하락, 제4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량은 감소했지만, 중국산 의존도는 높아졌음을 의미함(<그림5>)

- 중국산 수입량과 비율이 증가한 품목(제1사분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 수입량은 증가했지만, 중국산 비율이 감소한 품목(제2사분면)은 고추, 양파, 생강, 당근, 녹두, 국화 등이며, 중국 외의 타국가산 수입량 증가로 중국산 의존도가 하락한 품목임.
- 중국산 수입량과 비율이 감소한 품목(제3사분면)은 쌀, 대두, 팥, 들깨, 마늘, 딸기, 표고버섯, 기타 한약재 등으로 중국산에 대한 국내 수요 감소로 중국산 의존도가 하락한 품목임.

한·중 수교 30년, 농식품 교역 동향과 협력 과제

- 중국산 수입량은 감소하였지만, 중국산 수입 비율이 증가한 품목(제4사분면)은 참깨, 파, 고사리 등으로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의존도가 높아진 품목임.

〈그림 5〉 중국산 주요 신선 농식품(20개)의 수입량과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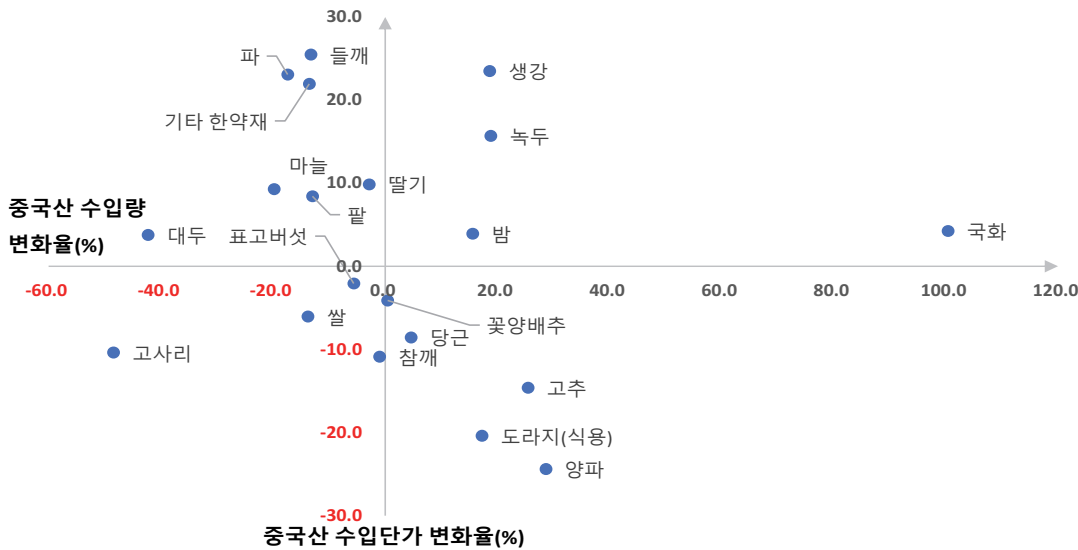


주 1) 중국산 수입량 증감률과 중국산 비율 변화분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2010~2015년 산술평균)과 FTA 발효 후 6년 평균(2016~2021년 산술 평균)을 비교한 값임.  
 2) 주요 품목은 신선 농식품 수입액에서 2021년 기준 상위 20개 품목을 제시함.  
 3) 제1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량이 증가하고 중국산 비율 상승으로 중국산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제2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량은 증가했지만, 중국산 의존도는 낮아졌음을 의미함. 또한, 제3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량과 중국산 의존도 하락, 제4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량은 감소했지만, 중국산 의존도는 높아졌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그림 6〉의 제1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국산 수요 증가로 수입량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제2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단가 하락 및 수요변화로 중국산 수입량이 증가했음을 의미함. 또한, 제3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변화 및 수입선 다변화로 중국산 수입량이 감소했고, 제4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단가 상승과 수요변화로 중국산 수입량이 감소했음을 의미함(〈그림 6〉)

- 중국산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량이 증가한 품목(제1사분면)은 녹두, 생강, 밤, 국화 등이며, 국내 중국산 수요 증가로 수입량이 증가한 품목임.
- 중국산 수입단가 하락으로 중국산 수입량이 증가한 품목(제2사분면)은 고추, 양파, 당근, 도라지 등임.
- 중국산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량이 감소한 품목(제3사분면)은 쌀, 고사리, 표고버섯 등으로 중국산에 대한 국내 수요 감소로 수입량이 감소한 품목임.
- 중국산 수입단가 상승으로 중국산 수입량이 감소한 품목(제4사분면)은 대두, 팥, 들깨, 마늘, 파, 기타 한약재 등임.

〈그림 6〉 중국산 주요 신선 농식품(20개)의 수입량과 수입단가 변화



주 1) 중국산 수입량 증감률과 중국산 수입단가 변화분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2010~2015년 산출평균)과 FTA 발효 후 6년 평균(2016~2021년 산출평균)을 비교한 값임.  
 2) 주요 품목은 신선 농식품 수입액에서 2021년 기준 상위 20개 품목을 제시함.  
 3) 제1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국산 수요 증가로 수입량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제2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단가 하락 및 수요변화로 중국산 수입량이 증가했음을 의미함. 또한, 제3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변화 및 수입선 다변화로 중국산 수입량이 감소했고, 제4사분면은 중국산 수입단가 상승과 수요변화로 중국산 수입량이 감소했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 2.1.3. 한국의 對중국 농식품 부류별·품목별 수출액 동향<sup>3)</sup>

한국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을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수출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임산물과 축산물 수출액은 감소추세를 보임(〈그림 7〉)

- 2021년 농산물(11억 5천만 달러)과 축산물(1억 3천만 달러) 수출액은 2000년 대비 각각 942.3%와 764.2% 증가했으며, 임산물 수출액(6,266만 달러)은 같은 기간 4.3% 감소함.
- FTA 발효 후 6년 평균 농산물 수출액(8억 9천만 달러)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 대비 35.6% 증가했으며, 임산물(9,441억 달러)과 축산물(1억 4천만 달러) 수출액은 각각 14.7%와 4.1% 감소함.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의 부류별 비율은 2021년 기준 농산물이 85.9%로 가장 크고, 그다음은 축산물(9.4%)과 임산물(4.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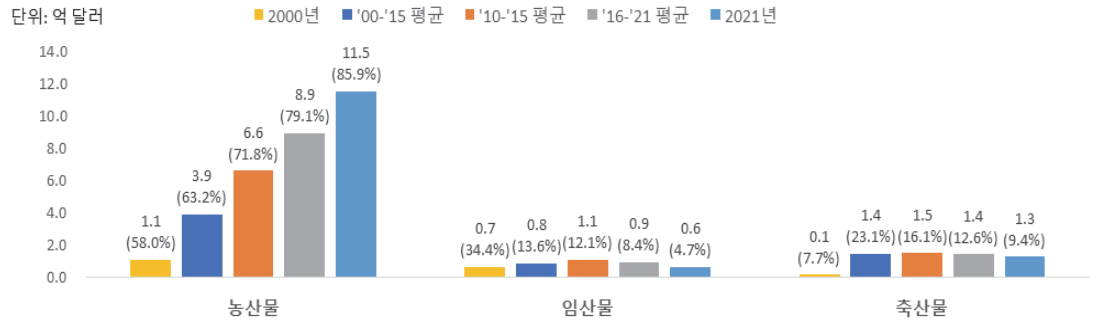
- 2021년 농산물(85.9%)과 축산물(9.4%) 수출액 비율은 2000년 대비 각각 27.9%p와 1.8%p 상승했으나, 임산물(4.7%)은 같은 기간 29.7%p 하락함.

3) 농식품 부류별·품목별 교역 동향은 HS 코드별 교역자료 수집이 가능한 2000년부터 제시함.

## 한·중 수교 30년, 농식품 교역 동향과 협력 과제

- 농산물의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출액 비율(79.1%)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 대비 7.3%p 상승했으며, 임산물과 축산물은 같은 기간 각각 3.7%p와 3.6%p 하락함.

〈그림 7〉 한국의 對중국 농식품 부류별 수출액 변화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한국의 對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농산물 부류에 속하는 라면, 기타 음료, 홍삼조제품, 기타 과실, 과실혼합물, 기타 소스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축산물은 조제분유와 생우유 수출액이 증가함

- FTA 발효 후 6년 평균 라면(1억 2천만 달러)과 기타 음료(4,739만 달러) 수출액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각각 257.2%와 83.9% 증가함.
- FTA 발효 후 6년 평균 기타 과실(2,482만 달러)과 과실혼합물(2,910만 달러) 수출액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각각 287.3%와 693.9% 증가함.
- FTA 발효 후 6년 평균 홍삼조제품(1,249만 달러)과 기타 소스제품(2,503만 달러) 수출액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각각 436.6%와 143.9% 증가함.
- FTA 발효 후 6년 평균 조제분유(7,563만 달러)와 생우유(1,573만 달러) 수출액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각각 53.0%와 101.5% 증가함.

신선 또는 1차 가공 농식품에서 한국산 홍삼, 기타 과실과 포도의 對중국 수출액이 증가했고, 밤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홍삼 수출액(4,559만 달러)은 2000년 대비 18배 이상 증가했으며,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출액(3,135만 달러)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21.0% 증가함.
- 2021년 기타 과실 수출액(3,098만 달러)은 2000년 대비 394배 이상 증가했으며,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출액(2,482만 달러)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287.3% 증가함.
- 2017년까지 10만 달러 미만이었던 포도는 2021년에 86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출액은 평균 403만 달러를 기록함.<sup>4)</sup>

〈표 4〉 한국의 對중국 주요 농식품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변화율(%)		
	2000년	16년 평균('00-'15)	6년 평균('10-'15)	6년 평균('16-'21)	2021년	(E-A)/A *100	(D-B)/B *100	(D-C)/C *100
	(A)	(B)	(C)	(D)	(E)			
<b>농산물 전체</b>	<b>110.4</b>	<b>389.7</b>	<b>658.9</b>	<b>893.2</b>	<b>1,150.9</b>	<b>942.3</b>	<b>129.2</b>	<b>35.6</b>
혼합조제식료품	46.4	54.6	66.5	112.2	180.6	289.3	105.3	68.8
라면	2.2	21.3	32.4	115.9	149.9	-	443.8	257.2
자당	12.0	66.4	117.9	84.6	85.1	606.8	27.4	-28.3
기타 음료	0.2	12.2	25.8	47.4	73.4	-	287.6	83.9
홍삼	2.5	11.8	25.9	31.35	45.6	-	164.7	21.0
단일과실조제품	0.9	9.5	19.9	25.7	43.8	-	171.4	28.9
커피조제품	0.7	25.5	49.4	32.5	42.6	-	27.8	-34.1
곡류조제품	1.8	5.6	7.6	16.3	37.6	-	191.7	115.3
기타 소스제품	0.8	5.5	10.3	25.0	34.8	-	352.8	143.9
기타 과실	0.1	2.8	6.4	24.8	31.0	-	774.8	287.3
과실혼합물	0.1	1.4	3.7	29.1	28.4	-	-	693.9
비스킷	1.2	16.0	30.8	27.2	28.0	-	69.5	-11.8
인삼음료	0.0	0.5	1.0	12.3	27.8	-	-	-
기타 베이커리제품	2.5	18.7	40.2	20.1	26.7	955.8	7.9	-49.9
홍삼조제품	0.1	1.0	2.3	12.5	23.0	-	-	436.6
리큐르	0.0	0.1	0.3	8.1	22.1	-	-	-
유자차	0.0	9.4	19.3	18.0	19.9	-	90.7	-6.9
커피	0.4	8.1	12.9	14.2	19.1	-	75.3	10.4
글리세롤(조상의 것)	0.0	2.0	4.2	6.1	17.9	-	197.3	44.2
물	0.1	2.1	4.4	8.9	15.9	-	321.0	100.8
기타 식물성액즙	0.0	1.3	2.8	10.9	12.8	-	754.6	285.9
채소종자	3.0	4.8	8.0	14.4	11.9	300.0	200.8	80.2
캔디	0.2	5.1	7.9	11.5	10.8	-	126.3	46.1
소주	0.4	4.6	7.2	9.1	9.7	-	99.4	27.5
포도	0.0	0.0	0.1	4.0	8.6	-	-	-
초	0.1	3.8	8.1	7.0	8.3	-	81.5	-14.4
파프리카	0.0	0.0	-	0.0	0.1	-	-	-
<b>임산물 전체</b>	<b>65.5</b>	<b>83.9</b>	<b>110.7</b>	<b>94.4</b>	<b>62.7</b>	<b>-4.3</b>	<b>12.6</b>	<b>-14.7</b>
펄프	0.0	7.8	12.0	11.2	15.2	-	44.2	-6.9
기타 석제품	0.1	1.8	1.7	11.0	13.5	-	504.5	547.2
밤	1.9	15.6	17.5	12.8	12.5	571.6	-17.9	-27.0
<b>축산물 전체</b>	<b>14.6</b>	<b>142.6</b>	<b>148.0</b>	<b>141.9</b>	<b>126.1</b>	<b>764.2</b>	<b>-0.5</b>	<b>-4.1</b>
조제분유	0.7	19.5	49.4	75.6	72.9	-	288.8	53.0
생우유	0.0	3.5	7.8	15.7	13.4	-	348.4	101.5
소원피	0.0	18.2	7.0	13.5	13.3	-	-25.6	93.6
기타 양모, 섬유모, 조수모 등	12.7	23.1	26.1	14.5	11.4	-10.4	-37.4	-44.5

주 1)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었으며, FTA 발효 전·후 기간별 평균은 산출평균값임.

2) 부류별 품목은 2021년 수입액 규모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농산물은 800만 달러, 임산물(석제품 제외)과 축산물은 각각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을 제시했으며, 파프리카를 추가로 제시함.

3) 변화율에서 변화율이 없거나 1,000% 이상인 품목은 '-'로 표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4) 對중국 신선포도 수출은 수출검역 협상이 타결된 2015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17년 사인머스켓이 최초로 수출된 이후 수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김경필 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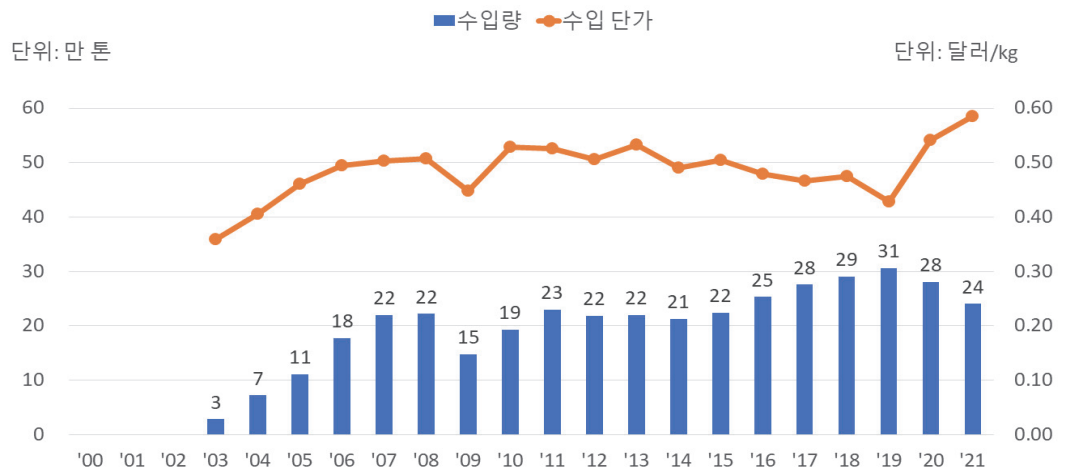
## 2.2. 중국산 주요 농식품 품목별 수입량 변화<sup>5)</sup>

### 2.2.1. 김치<sup>6)</sup>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입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금융위기 기간(2008~200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함. 다만, FTA 발효 전까지 정채하던 수입량이 FTA 발효 후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증가함(그림 8)

- 한국은 중국산 김치를 기준관세율(20%)의 1%만 인하하기로 했으며, 19.8%의 관세를 매년 부과함.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연평균 3.0%씩 증가하는 데 그침.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내산 배추 가격 변동성 확대로 국내 음식점 등의 수입 김치 수요가 증가하면서 연평균 4.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 중국산 김치 수입단가는 2019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2019년 이후 상승추세를 보임.

〈그림 8〉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입량 및 수입단가 추이



주: 수입단가는 김치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집계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자료 재가공.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외식수요 감소와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3년 동안 감소했으며, 2021년 수입량은 24만 1천 톤을 기록함(표 5))

- FTA 발효 후 한국의 6년간 중국산 김치 평균 수입량은 27만 5천 톤으로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26.8% 증가함.

5) 중국산 주요 수입 품목은 ① 수입액이 크고, ② 국내산 농식품과 일정 부분 경합하는 ③ 신선 농식품에서 선정했으며, 6개 품목(김치, 고추, 참깨, 당근)을 대상으로 수입량 변화를 분석함. 다만, 화훼류의 경우 수입액 규모가 작아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6) 김치 수입량은 HS2005.90.1000, HS2005.99.1000을 대상으로 집계함.

7)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7년 4월 서브파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2008년 9월) 등으로 시작됨. 2009년 2월에 미국 정부가 금융안정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안정되기 시작함.

- 2021년 중국산 김치 수입단가는 kg당 0.58달러로 2000년 대비 54.4% 상승했으며, FTA 발효 후 6년간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0.50달러로 FTA 발효 전보다 3.7% 하락함.

〈표 5〉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입량 변화

단위: 천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변화율(% , %p)		
	2000년	16년 평균('00-'15)	6년 평균('10-'15)	6년 평균('16-'21)	2021년	(E-A)/A *100	(D-B)/B *100	(D-C)/C *100
	(A)	(B)	(C)	(D)	(E)			
수입량	0.47	143	217	275	241	-	92.5	26.8
비율(%)	98.8	100	100	100	100	1.2	-	-
수입단가	0.38	0.47	0.51	0.50	0.58	54.4	4.5	-3.7

주 1) 비율은 기간별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기간별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대부분을 차지함.

2) 기간별 평균값은 산술 평균을 의미하며, 비율의 변화율은 실제로 변화분(%p)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자료 재가공.

### 2.2.2. 고추<sup>8)</sup>

한국의 중국산 고추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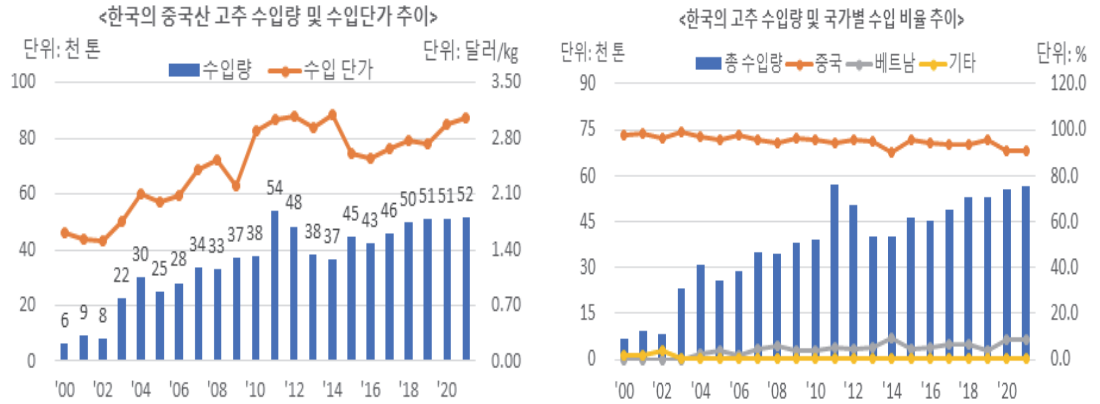
- 한국은 한·중 FTA에서 중국산 고추의 관세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음. 다만, 고추는 7,185톤(지정 기관 배정 4,000톤, 수입권 공매 2,185톤, 실수요자 배정 1,000톤)의 WTO TRQ 물량이 배정됨.
- 2011년에 국내산 고추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수입량이 급증했으며, 2012년부터 국내 공급량 증가로 정부가 수입을 자제하면서 2014년까지 수입량이 감소함. 2015년에 2014년 국내산 고추 생산량 감소에 따라 수입량이 다시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중국산 고추 수입단가는 일부 하락 시점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임.

한국의 고추 수입량은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산 수입 증가로 인해 중국산 비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여전히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함(〈그림 9〉)

- 중국산 고추 수입량 비율은 2000년대 중반까지 98% 수준에 달했으나, 베트남산 고추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 2021년에 91.4%로 하락함.

8) 고추 수입량은 HS0709.60.0000, HS0709.60.9000, HS0710.80.7000, HS0711.90.5091, HS0904.20.1000, HS0904.20.2000, HS0904.21.0000, HS0904.22.0000을 대상으로 집계함.

<그림 9> 한국의 고추 수입 동향과 국가별 비율 추이



주: 고추 수입량은 냉동, 건조(파쇄 또는 분쇄, 파쇄하거나 분쇄하지 않은 것) 등을 건조 고추 양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자료 재가공.

한국의 중국산 고추 수입량 증가 추세는 최근 들어 둔화하지만, 2021년 수입량은 5만 2천 톤으로 2000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표 6>)

- FTA 발효 후 6년 동안 중국산 고추 평균 수입량은 4만 9천 톤으로 FTA 발효 전 6년 평균(4만 3천 톤) 보다 12.5% 증가함.
- 2021년 중국산 고추 수입단가는 kg당 3.07달러로 2000년 대비 91.1% 상승했으나,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2.79달러로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5% 하락함.

<표 6> 한국의 중국산 고추 수입량 변화

단위: 천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변화율(% , %p)		
	2000년	16년 평균('00-'15)	6년 평균('10-'15)	6년 평균('16-'21)	2021년	(E-A)/A *100	(D-B)/B *100	(D-C)/C *100
	(A)	(B)	(C)	(D)	(E)			
수입량	6.5	31	43	49	52	702.6	58.1	12.5
비율(%)	97.5	95.7	94.8	93.4	91.4	-6.0	-2.3	-1.5
수입단가	1.60	2.33	2.94	2.79	3.07	91.1	19.6	-5.0

주 1) 비율은 기간별 중국산 고추 수입량이 우리나라 전체 고추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2) 고추 수입량은 냉동, 건조 고추 등을 건조 고추 양으로 환산한 값이며, 수입단가는 수출이 적용된 전체 수입량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임.  
 3) 기간별 평균값은 산술 평균을 의미하며, 비율의 변화율은 실제로 변화분(%p)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자료 재가공.



### 2.2.3. 참깨<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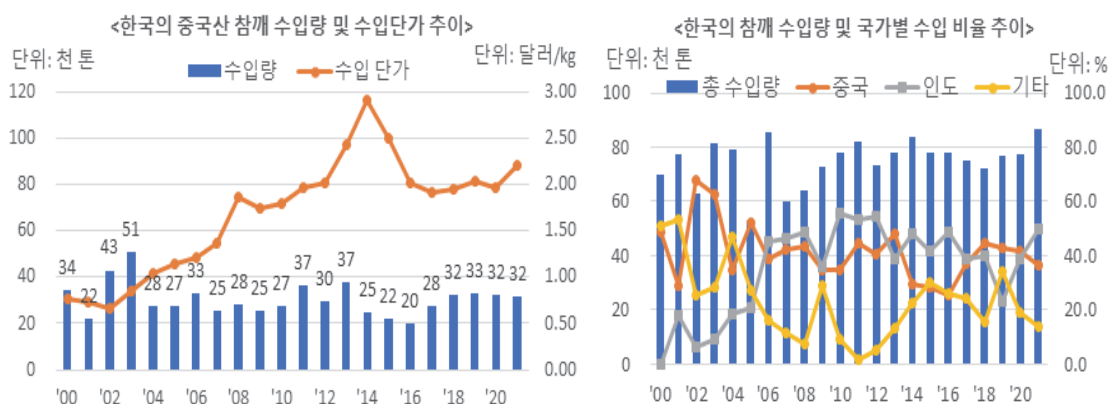
한국의 중국산 참깨 수입량은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8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임(그림 10)

- 중국산 참깨는 한·중 FTA에서 양허가 제외되었으나, 한국은 중국에 매년 2만 4,000톤의 무관세 관세율 할당(TRQ)을 제공함.
- 2014년에 인도산이 중국산을 대체하면서 중국산 참깨 수입량이 감소했고, 2017년에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산 FTA TRQ 물량이 도입되면서 수입량이 증가함.
- 중국산 참깨 수입단가는 한·중 FTA 발효 직전인 2014년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까지 하락 추세를 보인 후 정체 상태임.

한국은 참깨를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원산지별 가격 변화에 따라 수입량 비율이 변동하는 경향을 보임(그림 10)

- 한국의 중국산 참깨 수입량 비율은 2002년 68.0%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추세를 보여 2016년 25.3%까지 하락함. 이후 다시 증가해 2021년에는 36.3%를 차지함.
- 인도산 수입량은 중국산을 대체하여 2006년 이후 중국산 수입량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2015년 이후 나이지리아산 수입량이 증가하여 2021년 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나이지리아 외에도 부르키나파소, 토고,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지역이 새로운 참깨 수입처로 부상함.<sup>10)</sup>

〈그림 10〉 한국의 참깨 수입 동향과 국가별 비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자료 재가공.

9) 참깨 수입량은 HS1207.40.0000을 대상으로 집계함.

10) 한국은 참깨 자급률(13.9%, 2019년 기준)이 낮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임. 이에 한국 정부는 WTO TRQ 기본물량(6,731톤)에 증량 물량(57,269톤)을 포함하여 총 64,000톤의 WTO TRQ를 운영하고 있음. 그중에 국영무역 물량은 51,000톤인데,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수입을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인도산과 아프리카산 참깨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사업처 양념특작부 담당자, 2021. 10. 26. 전화인터뷰 진행).

한국의 중국산 참깨 수입량은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2000년보다 8% 감소한 3만 2천 톤을 기록함(〈표 7〉)

- FTA 발효 후 6년 평균 중국산 참깨 수입량(2만 9천 톤)은 FTA 발효 전 6년 평균과 비슷(-1.0%)함.
- 2021년 중국산 참깨 수입단가는 kg당 2.21달러로 2000년 대비 191.9% 상승했지만,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2.02달러로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1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7〉 한국의 중국산 참깨 수입량 변화

단위: 천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변화율(% , %p)		
	2000년	16년 평균('00-'15)	6년 평균('10-'15)	6년 평균('16-'21)	2021년	(E-A)/A *100	(D-B)/B *100	(D-C)/C *100
	(A)	(B)	(C)	(D)	(E)			
수입량	34	31	30	29	32	-7.8	-5.1	-1.0
비율(%)	48.8	42.0	37.6	37.8	36.3	-12.5	-4.2	0.1
수입단가	0.76	1.56	2.26	2.02	2.21	191.9	29.5	-10.9

주 1) 비율은 기간별 중국산 참깨 수입량이 우리나라 전체 참깨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2) 기간별 평균값은 산술 평균을 의미하며, 비율의 변화율은 실제로 변화분(%p)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자료 재가공.

## 2.2.4. 당근<sup>11)</sup>

한국의 중국산 당근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중국의 생산여건에 따라 증감을 반복함(〈그림 11〉)

- 중국산 신선 당근(30%), 냉동 당근(27%)과 건조 당근(30%)은 한·중 FTA에서 양허가 제외됨.
- 2020년에는 중국 푸젠성 당근 수입 금지 조치(2019년 3월 24일 자)와 하북·내몽고성의 집중호우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중국산 당근 수입량이 감소함.
- 2021년에는 중국 저장성 등의 한파에 따른 겨울당근 작황 부진과 산동성 등 주산지의 잦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상품성이 저하됨에 따라 중국산 수입량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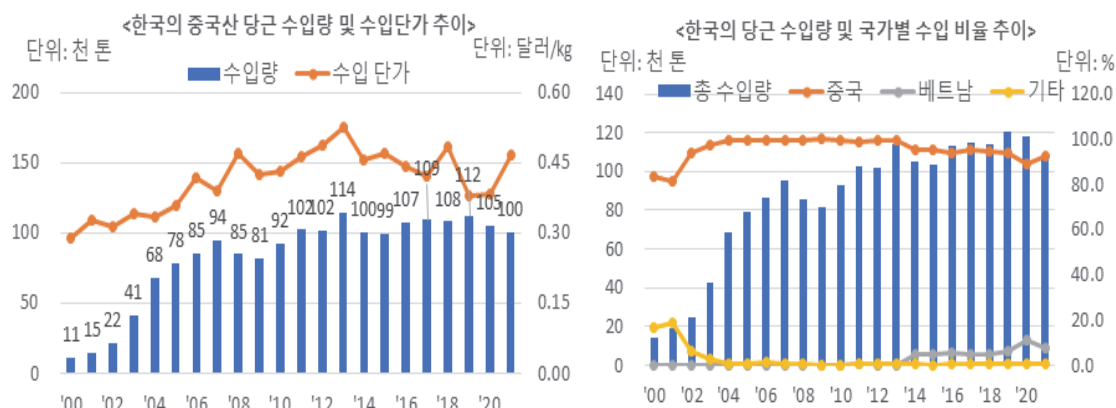
한국의 당근 수입량은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2013년 이후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11〉)

- 중국산 당근 수입량 비율은 2014년 이후 중국 푸젠성 당근 수입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베트남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2020년 88.7%까지 하락함. 2021년에는 베트남산 당근의 병해충 검출에 따른 일시적인 수입 금지<sup>12)</sup>로 92.1%로 상승함.

11) 당근 수입량은 HS0706.10.1000, HS0710.80.4000, HS0711.90.4000, HS0712.90.2040을 대상으로 집계함.

12) 베트남산 당근은 금지 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출로 식물방역법 제 10조(수입 금지) 및 제 11조(수입 제한)에 따라 2020년 12월 11일 자료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무감염 증명 및 원산지 부기를 조건으로 2021년 3월 4일 선적분부터 수입이 허용됨.

〈그림 11〉 한국의 당근 수입 동향과 국가별 비율 추이



주: 당근 수입량은 냉동과 건조를 신선 양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자료 재가공.

- 한·중 FTA 발효 후 중국산 당근 수입량은 FTA 발효 전 평균보다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표 8〉).
- 2021년 중국산 당근 수입량은 10만 톤으로 2000년 대비 834.4% 증가함.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입량은 10만 7천 톤으로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5.3% 증가함.
- 2021년 중국산 당근 수입단가는 kg당 0.47달러로 2000년 대비 61.1% 상승했지만,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0.43달러로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9.2% 하락함.

〈표 8〉 한국의 중국산 당근 수입량 변화

단위: 천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변화율(% , %p)		
	2000년	16년 평균('00-'15)	6년 평균('10-'15)	6년 평균('16-'21)	2021년	(E-A)/A *100	(D-B)/B *100	(D-C)/C *100
	(A)	(B)	(C)	(D)	(E)			
수입량	11	74	102	107	100	843.4	44.0	5.3
비율(%)	73.9	97.6	98.1	93.1	92.2	18.3	-4.6	-5.1
수입단가	0.29	0.41	0.47	0.43	0.47	61.1	5.7	-9.2

주 1) 비율은 기간별 중국산 당근 수입량이 우리나라 전체 당근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2) 당근 수입량은 냉동 당근과 건조 당근을 신선 양으로 환산한 값이며, 수입단가는 수출이 적용된 전체 수입량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임.

3) 기간별 평균값은 산술 평균을 의미하며, 비율의 변화율은 실제로 변화분(%p)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자료 재가공.

### 2.3. 對중국 주요 농식품 품목별 수출량 변화<sup>13)</sup>

#### 2.3.1. 홍삼<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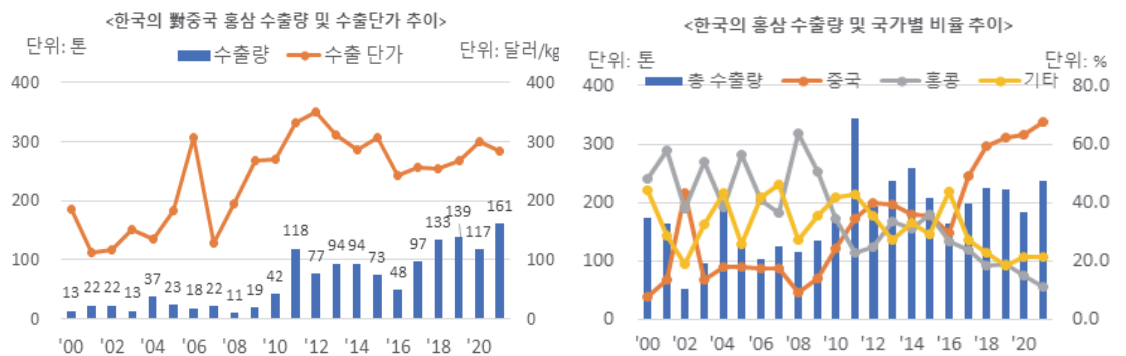
한국의 對중국 홍삼 수출량은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몇 차례 증감을 반복한 이후 2021년에는 최고 수출량을 기록함(그림 12))

- 한국의 對중국 홍삼 수출량은 2016년까지 중국 내 고가의 선물용 뿌리삼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함. 2017년 이후에는 중국 내 유통채널 확대와 건강 소비 유행,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홍삼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증가함.

한국은 홍삼을 중국이나 홍콩으로 수출하는데, 수출 대상국의 국내 여건 변화에 따라 수출량 비율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2))

- 2000년대에는 홍삼을 주로 홍콩으로 수출했으나, 2009년부터 주요 수출국이 중국으로 변경되었음. 즉, 對홍콩 수출량은 2008년 73톤(63.7%)에서 2020년 28톤(15.2%)으로 61.4% 감소했고, 對중국 수출량은 같은 기간 11톤(9.3%)에서 117톤(63.4%)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 對중국 수출의 경우 한국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한 유통채널 확대, 중국의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가 확대되면서 보건 식품 인증을 획득한 한국산 인삼 제품 수요가 증가함(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

<그림 12> 한국의 홍삼 수출 동향과 국가별 비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자료 재가공.

2021년 한국의 對중국 홍삼 수출량은 161톤으로 2000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함(표 9))

- FTA 발효 후 6년간 對중국 평균 수출량은 116톤으로 FTA 발효 전 6년 평균 대비 39.9% 증가함.

13)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① 수출액이 크고, ② 국내 원료농산물 비율이 높은 농식품에서 선정했으며, 3개 품목(홍삼, 신선포도, 생우유)을 대상으로 수출량 변화 원인과 그 특징을 분석함. 다만, 화훼류의 경우 수입액 규모가 작아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14) 홍삼 수출량은 HS1211.20.1310, HS1211.20.1311, HS1211.20.1319, HS1211.20.1320, HS1211.20.1330, HS1211.20.1390, HS1211.20.1391, HS1211.20.1399를 대상으로 집계함.

- 2021년 對중국 홍삼 수출단가는 kg당 284달러로 2000년 대비 53.1% 상승했으나,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267달러로 FTA 발효 전 6년 평균보다 1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한국의 對중국 홍삼 수출량 변화

단위: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변화율(% , %p)		
	2000년	16년 평균('00-'15)	6년 평균('10-'15)	6년 평균('16-'21)	2021년	(E-A)/A *100	(D-B)/B *100	(D-C)/C *100
	(A)	(B)	(C)	(D)	(E)			
수출량	13.3	43.5	82.8	115.8	160.7	-	166.1	39.9
비율(%)	7.7	25.8	35.1	56.5	67.5	59.9	30.7	21.4
수출단가	185	227	309	267	284	53.1	17.7	-13.5

주 1) 비율은 기간별 對중국 홍삼 수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홍삼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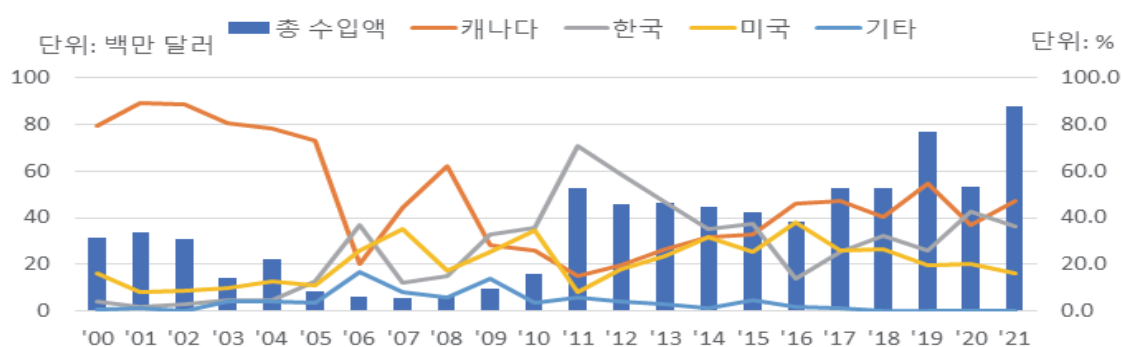
2) 기간별 평균값은 산술 평균을 의미하며, 비율의 변화율은 실제로 변화분(%p)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자료 재가공.

중국은 주로 캐나다, 한국, 미국에서 인삼을 수입하며, 중국의 인삼 관련 제품 수입액은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13〉)<sup>15)</sup>

- 2021년 중국의 인삼 관련 제품 수입액 비율은 캐나다가 47.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한국(36.5%), 미국(16.3%)의 순서임. 중국의 인삼 관련 제품 수입액에서 한국산 비율은 2011년에 70.8%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6년 13.9%까지 하락추세를 보인 후 한국산 점유율이 점차 회복됨.
- 중국의 인삼 관련 제품 수입액은 2011년 5만 2천 달러를 기록한 뒤 2016년 3만 8천 달러까지 감소 하였으나, 점차 회복되어 2021년 8만 7천 달러를 기록함.

〈그림 13〉 중국의 인삼 관련 제품 수입액 및 한국산 비율 추이



주: 중국의 인삼 수입액은 수삼, 백삼, 홍삼 등을 포함하는 HS1211.20을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Global Trade Atlas(<https://connect.ihsmarkit.com/gta/data-extracts>). 검색일: 2022. 10. 26.

15) 중국은 인삼 뿌리, 잎과 가공품 등 중국의 인삼 관련 제품의 HS 코드가 세분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중국의 인삼 수입 동향은 특정 품목이 아닌 인삼 관련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하되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함.

### 2.3.2. 신선포도<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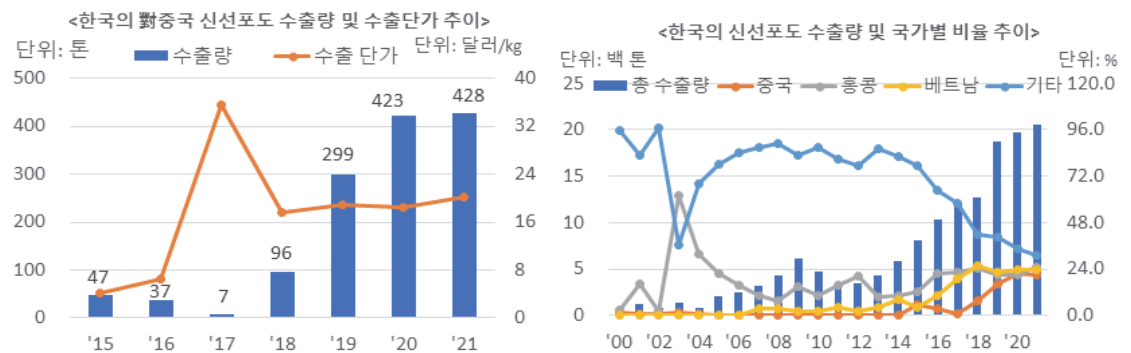
한국의 對중국 신선포도 수출은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된 2015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18년 이후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음(그림 14)

- 對중국 포도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이 2015년 7월 24일에 제정되어 공포됨(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검색일: 2022. 10. 25.).

한국은 주로 중국과 홍콩 외에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포도를 수출하고 있으며, 對중국 수출량 비율이 2017년 이후 급격히 상승함(그림 14)

- 2011년 이전에는 포도를 주로 홍콩이나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對미국 수출량이 절반가량을 차지함. 그러나 2010년 이후 對미국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그 비율이 2021년 8.3%로 하락함.
- 우리나라 포도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서 對싱가포르 수출량 비율은 2013년 30.9%를 기록했고, 對베트남 비율은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확대 및 한국산 선호도 증가로 2021년 23.3%로 상승함.
- 2017년 샤인머스켓이 중국으로 처음 수출되었고, 중국의 고급 과일 시장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출량 비율이 전체 2위인 21.4%(2021년)를 차지함(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

〈그림 14〉 한국의 신선포도 수출 동향과 국가별 비율 추이



주: 對중국 수출량 및 수출단가는 포도가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집계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자료 재가공.

2021년 한국의 對중국 신선포도 수출량은 428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출량은 215톤을 기록함(표 10)

- 한국의 對중국 신선포도 수출단가는 샤인머스켓 수출 증가로 FTA 발효 후 6년 동안 kg당 평균 19.5달러에서 2021년 20.1달러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16) 신선포도 수출량은 HS0806.10.0000을 대상으로 집계함.

〈표 10〉 한국의 對중국 신선포도 수출량 변화

단위: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변화율(% , %p)		
	2000년	16년 평균('00-'15)	6년 평균('10-'15)	6년 평균('16-'21)	2021년	(E-A)/A *100	(D-B)/B *100	(D-C)/C *100
	(A)	(B)	(C)	(D)	(E)			
수출량	0.5	7.2	23.4	215.0	428.0	-	-	820.4
비율(%)	1.4	2.2	4.7	13.6	20.8	19.4	11.5	9.0
수출단가	6.53	-	-	19.51	20.10	207.6	-	-

주 1) 비율은 기간별 對중국 신선포도 수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신선포도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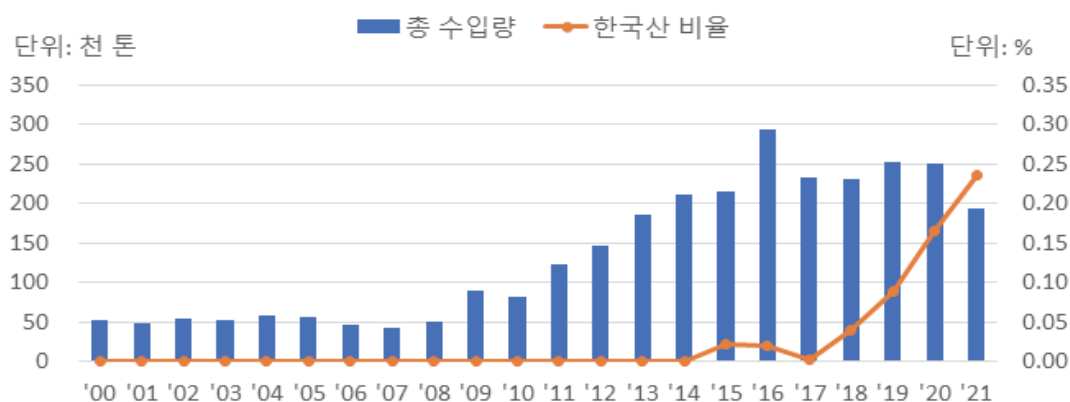
2) 기간별 평균값은 산술 평균을 의미하며, 비율의 변화율은 실제로 변화분(%p)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자료 재가공.

중국은 신선포도를 주로 칠레, 호주, 페루에서 수입하며, 2016년까지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최근 5년간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15)

- 중국의 신선포도 수입량 비율은 칠레가 2021년 기준 40.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호주(26.6%), 페루(24.3%) 순임. 한국산 신선포도 비율은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1% 미만의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중국의 신선포도 수입량은 2008년까지 5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 고품질 과일 수요 증가와 비수기 수요 증가에 따라 2016년 29만 4천 톤으로 급증함. 이후 2020년까지 25만 톤 수준을 유지하던 수입량이 2021년에는 중국 내 포도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한국산 신선포도 수입은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위체계(THAAD) 사태 등으로 위축되었으나, 샤인머스켓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국의 고급 과일 시장 중심으로 한국산 신선포도 수입이 확대됨. 이에 중국 내 한국산 신선포도 수입량 비율은 2021년 0.24%로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임.

〈그림 15〉 중국의 신선포도 수입량 및 한국산 비율 추이



주: 중국의 신선포도 수입량은 HS0806.10을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 10. 25.)

2.3.3. 생우유<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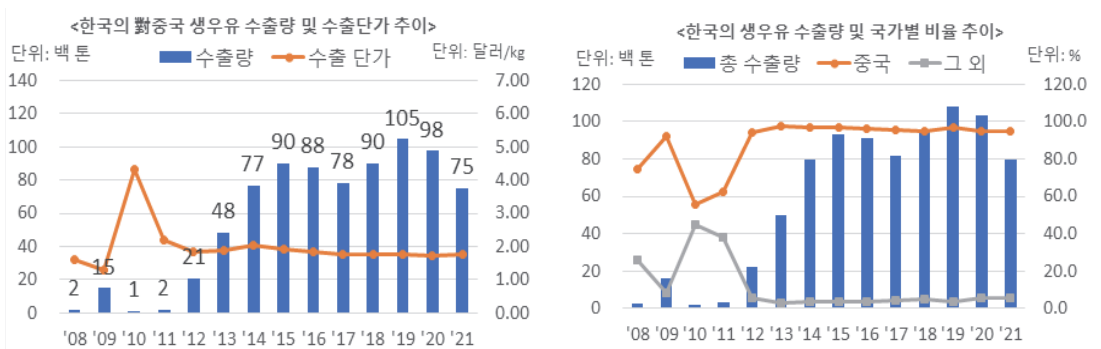
2008년에 최초로 시작된 우유 수출은 2010년 한국의 FMD(Foot-and-Mouse Disease: 구제역) 발생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12년 6월부터 수출이 재개됨(그림 16)

- 2008년에 서울우유가 중국으로 우유를 수출하면서 對중국 우유 수출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중국 내 멜라민 파동 등으로 중국 소비자의 안전한 우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출량이 급증하는 추세임.
- 최근에는 국내 주요 업체들이 콜드체인 시스템을 중국 내에 구축하면서 중국 내 프리미엄 시장을 대상으로 우유를 수출하고 있음(KOTRA 해외시장뉴스, 2015. 7. 30.).

한국의 전체 생우유 수출량에서 對중국 수출량 비율은 국내 FMD가 발생했던 2010~2011년을 제외하면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대부분 9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16)

- 對중국 우유 수출 초기에는 제조 우유(흰 우유에 탄산칼슘 등 기타 성분이 첨가된 우유)나 멸균 우유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2015년 7월 이후에는 살균우유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됨(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6. 3. “흰우유(살균우) 중국 수출 길 다시 열려- 국내 3개 생산업체 살균우 품목, 중국 정부 등록 완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5. 7. 30. “한국 흰 우유 대중국 수출 정식 재개”).<sup>18)</sup>

<그림 16> 한국의 생우유 수출 동향과 국가별 비율 추이



주: 수출단가는 생우유가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집계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자료 재가공.

한국의 對중국 우유 수출량은 2019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2년간 감소함(표 11)

- 2021년 對중국 우유 수출량은 7,503톤으로 전년 대비 23.1% 감소함.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으로 중국 내 재고 관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

17) 생우유 수출량은 HS0401.10.0000, HS0401.20.0000, HS0401.30.1000, HS0401.30.9000, HS0401.40.1000, HS0401.40.9000, HS0401.50.1000, HS0401.50.9000을 대상으로 집계함.  
 18) 중국은 2014년 5월 ‘수입산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중국 CNCA(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局)에 등록된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의 관련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 또한, 등록된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유제품이어도 등록상품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 수입을 금지함. 한국은 2014년 5월 기준 42개소를 중국 CNCA에 등록했으나, 살균우유 품목은 중국 당국이 중국 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보류함. 국내 3개 우유업체(매일, 서울, 연세)는 저온 살균 방식 생산 설비 증설로 2015년 6월에 리스트 등록에 성공함(KOTRA 해외시장뉴스, 2015. 7. 30. “한국 흰 우유 대중국 수출 정식 재개”).



- 생우유의 FTA 발효 전 6년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2.37달러였으며,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1.77달러로 25.3% 하락함.

〈표 11〉 한국의 對중국 우유 수출 변화

단위: 톤, 달러/kg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변화율(% , %p)		
	2000년	16년 평균('00-'15)	6년 평균('10-'15)	6년 평균('16-'21)	2021년	(E-A)/A *100	(D-B)/B *100	(D-C)/C *100
	(A)	(B)	(C)	(D)	(E)			
수출량	0.2	1,830.0	3,982.4	8,887.6	7,503.4	-	385.7	123.2
비율(%)	0.3	101.4	95.8	95.5	94.6	94.3	-5.9	-0.4
수출단가	2.40	1.75	2.37	1.77	1.78	-25.8	1.0	-25.3

주 1) 비율은 기간별 對중국 생우유 수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생우유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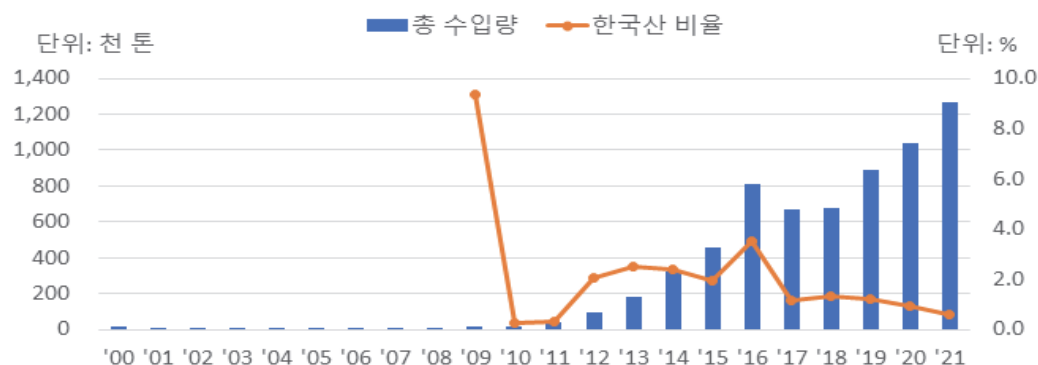
2) 기간별 평균값은 산술 평균을 의미하며, 비율의 변화율은 실제로 변화분(%p)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자료 재가공.

중국은 독일, 뉴질랜드, 폴란드, 호주 등에서 생우유를 수입하며, 생우유 수입량은 2016년 일시적 증가 후 2년간 감소함. 이후 2019년부터 수입량이 점차 회복되어 2021년에 최고치를 기록함(그림 17)

- 중국의 생우유 수입량 비율은 독일이 2021년 기준 31.6%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뉴질랜드(28.7%), 폴란드(11.9%) 등의 순서이며, 한국산 비율은 0.6%로 나타남.
- 중국의 생우유 수입량은 주요 수입 대상국인 유럽연합의 우유생산량할당제<sup>19)</sup> 폐지(2015년 4월),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2016년)과 중국 소비자의 수입 우유 선호도 증가에 따라 급증한 바 있음. 이후 2년간 감소하던 수입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2021년에 역대 최고인 126만 8천 톤까지 증가함.
- 중국의 한국산 생우유 수입량 비율은 미미한 편인데, 2016년 3.5%까지 상승한 이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태와 코로나19에 따른 통관 기간 증가 등으로 2021년 0.6%로 하락함.

〈그림 17〉 중국의 생우유 수입량 및 한국산 비율 추이



주: 중국의 생우유 수입량은 HS0401을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 10. 25.

19) 유럽연합의 우유생산량할당제는 유제품의 소비량 대비 과잉 생산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1984년에 도입되었으나, 낙농 기업들이 시장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2015년 3월 31일 이후 폐지됨.

## 2.4. 한·중 간 주요 교역 이슈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한·중 수교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21년 52억 달러의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지만, 중국산 수입액 비율은 2007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995년 8억 달러 수준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7.6%씩 증가했으며, FTA 발효 후 6년 평균 수입액(46억 달러)도 FTA 발효 전 6년 평균 수입액(43.5억 달러)보다 5.9% 증가함.
- 한국의 농식품 수입액에서 중국산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6.4%에서 2007년 21.0%로 상승한 이후 2021년에 12.4%로 하락함.
- 한·중 FTA 발효 이후 농식품 교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FTA 타결 시 주요 품목의 양허가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한·중 FTA에서 대부분 양허가 제외되어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국내 및 중국 내 수급 여건에 따라 수입량이 변동하는 때도 있어서, 국내산 농산물 수급 조절과 중국 내 생산 동향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김치와 고추의 경우 국내산 생산량이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입량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품목임.
- 중국산 마늘의 경우 최근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입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파는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수출의 경우, 대부분 중국 내 수요의 변화에 따라 수출이 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일부 품목은 국내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수출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홍삼은 중국 내 고가 뿌리삼 수요가 줄면서 수출이 감소하다가 중국 내 유통채널 다양화 및 코로나19 등에 따른 건강 소비 유행 등으로 수출이 다시 증가함.
- 포도의 경우 2015년에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된 영향과 더불어 샤인머스켓 등 중국 내 프리미엄 과일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증가함.
- 생우유의 경우 2009년 멜라민 사태 이후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통관 기간 증가로 수출이 감소함.

중국의 경우 한·중 FTA로 한국산 농산물 관세 철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품질 농산물과 농식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산 농산물 및 농식품의 對중국 수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중국 내 소비자들의 농식품 수요변화를 지속해서 관찰하면서 향후 수출을 증대할 기회를 포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최근 한·중 교역 증가세 둔화<sup>20)</sup>에 작용한 다양한 요인 중에서 세계 경제 여건 및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교역량 감소에 더해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라벨링 및 포장과 코로나19로 인한 검역 강화)의 영향을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및 인플레이션 압력 등 세계 경제 여건과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지역 봉쇄 등으로 한·중 교역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라벨링 및 포장 규정(한국의 건강 기능 식품류 통관 거부 사례 발생)과 코로나-19로 인한 검역 강화(생우유 및 홍삼 제품의 수출 감소)와 같은 비관세장벽 조치도 한·중 교역 증가세 둔화의 요인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통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통상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한·중 양국은 2022년 1월에 제 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함

- 한·중 FTA 공동위원회는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세할당제(TRQ) 운영 원활화, 통관 협력 제고 등을 논의하였으며, 수출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품목 수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서명하여,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20) 한·중 FTA 발효 전 10년(2005~2014년) 교역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6.1%, FTA 발효 후(2015~2021년) 교역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3.0%임.

## 03

## 한·중 농식품 교역의 제도적 이슈와 협력 과제

제3장에서는 언론 동향, 문헌,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주요 이슈의 내용과 사례를 소개하고 협력 과제를 도출함

- 주요 이슈로 한·중 교역 증가세 둔화의 요인 중 하나인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라벨링 및 포장 규정과 코로나19로 인한 검역 강화)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내용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중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과제를 제시함.

## 3.1. 라벨링 및 포장 규정

## 3.1.1. 주요 내용

중국은 2020년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표시 요건의 해당 범위를 국내 및 해외(수입) 생산 제품, 식품 첨가물, 특수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라벨링 관리·감독 규정' 개정안을 WTO에 통보함

- 중국의 식품 생산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9개임.
  - 1) 명칭, 규격, 순 함량, 생산일자, 2) 성분 또는 원료 배합표, 3) 생산자 명칭, 주소, 연락처, 4) 품질 보장기한(유통기한), 5) 제품 표준 코드, 6) 보관 조건, 7) 국가표준에서 사용된 식품 첨가물의 범용 명칭, 8) 생산허가증 번호(수입, 시설 등록번호), 9) 영유아 조제분유 및 특정제품에 필요한 기타 정보<sup>21)</sup>

중국은 2022년 1월부터 개정된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시는 중국 법규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따르도록 제도화함<sup>22)</sup>

- 일반 식품은 중국 법률, 법규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중국 법에 따라 설명서가 필요한 식품은 중문 설명서도 같이 첨부해야 함.
- 신선·냉동 육류는 내외포장에 뚜렷하고 알아보기 쉬운 중문 및 영문(또는 중문 및 수출국 언어)으로 표시<sup>23)</sup>해야 함. 또한, 목적지는 반드시 중국으로 표기하고 수출국의 공식 검사검역 표시가 필수임.

21) 미국 농무부(USDA), (2022).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의 내용 재인용.

2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2b).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방법. 번역본 재인용.

- 중국은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에 따라 수입식품 현장검사가 가능하고, 수입 보건식품 및 특수 식용 식품은 반드시 중문 라벨을 부착하고 및 이를 최소 판매 포장에 인쇄(스티커 불가)해야 함.
- 라벨에 필수적으로 표시하는 영양성분을 1+4(열량+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에서 1+6(열량+단백질, 지방, 포화지방(또는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설탕, 나트륨)으로 수정함.
- 중문 라벨은 중국으로 수출하기 전 중국 국내에서 신청해야 하고, 중문 라벨에는 품명, 원산지, 성분,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 사용방법, 중국 국내 판매업체 정보를 기재해야 함.

### 3.1.2. 사례 및 협력 방안

한·중 간 수출입 교역상품의 라벨링 및 포장 규정 사항 등에 대한 상호 신축적 적용방안 관련 협의가 필요함

- 한국의 경우 투명포장 자연식품에는 식품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스티커 및 꼬리표를 부착하여 식품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동등한 수준의 식품표시 요건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 〈사례〉

한국의 활력 캔디, 효소, 홍삼 등 건강 기능 식품류가 라벨 불합격을 사유로 중국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함(2022년 4월)<sup>24)</sup>

- 중국의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수입식품 중 보건식품과 특수식품의 중문 라벨은 수입 전 판매 용기 포장에 직접 인쇄돼야 하고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것이 불가함.

#### 〈협력 방안〉

한국의 수입식품 등에 대한 라벨링 기준에 따르면 상품에 ‘인쇄된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등의 라벨 부착 요건을 한국과 동일한 수준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3.2. 코로나19로 인한 검역 강화

### 3.2.1. 주요 내용

중국 해관총서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함<sup>25)</sup>

- 중국으로 수출하는 콜드체인 식품 기업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하자, 해관총서는 해외 콜드체인 식품 기업의 전염병 상황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잠재된 위험을 분석해 방역 조치를 취함.

23) 제조국가(지역), 제품명, 제조업체 등록번호, 제조 로트번호, 규격(외포장, 중문), 제조지(주/성/시/까지), 목적지, 제조날짜, 유통기한, 저장 온도 등의 내용 포함.

24) KATI 농식품수출정보(2022). 2022년 4월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보고서 참고.

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 2021년 한눈에 보이는 중국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참고.

## 한·중 수교 30년, 농식품 교역 동향과 협력 과제

- 2020년 9월,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이 있는 19개 국가의 56개 콜드체인 식품 기업에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취했고, 그 가운데 41개 기업은 자발적으로 중국 수출을 중단함.
- 2020년 제품 샘플 및 내외포장 샘플 등 총 50만 개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6개만 코로나19가 확인됨.

중국 베이징시는 2022년 ‘베이징 진입 콜드체인 식품 유통 방역체계’를 발표하고 해당 제도를 시행 중임<sup>26)</sup>

- 4월부터 수입 콜드체인 식품은 1) 콜드체인 시스템 사전 예약, 2) 베이징 진입 전 검문소 검사, 3) 베이징 진입 후 검사소(첫 번째) 검사 과정에서 안전하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식품 유통, 판매가 가능함.  
\* 사전 예약 품목: 육류, 수산물, 저온 신선(냉장) 수산물, 식량, 유제품, 채소, 과일, 식품 등 냉동·냉장 제품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 냉장·냉동 식품에만 실시하던 PCR 검사와 살균·소독 조치를 상온 제품에까지 확대 실시함<sup>27)</sup>

- 수입 상온식품은 박스 단위로 살균·소독하고, PCR 검사 완료 후 10일 이상 보관 후 출고 가능함.
- 청두시는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운송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2회 이상 PCR 검사와 살균·소독 조치를 의무화하고, 광둥성은 한국산 냉장·냉동 식품<sup>28)</sup>을 통관 시 전수검사로 전환함.

중국 산둥성은 코로나19 확산 및 수입 화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고위험 비콜드체인 수입 컨테이너 화물 관리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산둥성 각 시에 집중관리창고 설치를 지시하여 2022년 4월 10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감<sup>29)</sup>

- 집중관리창고 도착 24시간 전에 사전 예약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컨테이너 번호, 원산지 국가(지역), 수량, 입고 장소, 입고 시기 등의 정보 및 통관 증명서를 기재해야 함.
- 창고 입고 시 1) 수입물품 통관서(검사검역증명서), 2) 소독증명서, 3) PCR 검사증명서를 현장에서 필수로 제출해야 함. PCR 검사가 양성일 경우 지정구역에 봉인된 상태로 임시 보관함.
- 집중관리창고에 입고된 화물은 10일 이상 거치되고, 거치 종료 후 통합 PCR 샘플링 검사를 시행함.
- 화물 추적을 위해 출고된 화물은 출고증명서가 필요하고, 증명서가 없을 시 경우 가공, 보관, 판매 등이 불가능함.

26)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 4. 1.). “4월 1일부터 수입 콜드체인 식품 베이징 진입 시 검역 강화” 참고.

2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신문. (2022. 3. 25.) “중국 ‘코로나 검역’ 강화...한국식품 수출 차질 우려” 참고.

28) 중국 광둥성의 한국산 냉장·냉동 식품에 대한 기존 방침은 샘플조사 실시였음.

29)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 4. 15.). 장재영(2022)의 “중 산둥성, 방역 강화 위해 비콜드체인 수입 컨테이너 화물 집중관리” 참고.

### 3.2.2. 사례 및 협력 방안

코로나19 이후 콜드체인 식품 방역체계 및 검역조건 강화 등으로 통관 소요시간이 늘어나면서 한·중 간 교역에 악영향을 미침. 양국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검역기준과 통관절차의 탄력적 적용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sup>30)</sup>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중국의 검역 및 통관절차 강화로 수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감소함(생우유: 약 4일 → 14일, 홍삼: 약 7일 → 24일로 증가).

#### 〈사례 1: 생우유〉

-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칭다오시를 시작으로 검역, 통관 절차를 강화하면서 2022년 3월 중국으로 수출된 우유는 전년 동기 대비 48%가 감소함(관세청 수출입통계).
- 칭다오의 경우 PCR 검사를 마치고 난 뒤에도 창고에 1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하므로 검역에 2일, 보관 기간 10일, 내륙 배송 기간 약 2일을 합치면 수출에 총 14일 정도가 소요됨.
- 중국에 식품을 유통점에 납품할 때에는 유통기한의 30~50%가 남아야 하나, 유통기한이 통상 14~15일 정도로 짧은 생우유는 통관 절차가 강화되면 남은 유통기한이 짧아 항구와 인접한 대도시(상하이)로만 수출이 가능함. 또한, 코로나로 인한 상하이 봉쇄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함.

#### 〈사례 2: 홍삼〉

- 중국에 선박으로 홍삼을 수출할 경우 통관까지의 소요 기간이 7일에서 24일까지 증가하여 홍삼의 수출 실적(농협홍삼 기준)이 2022년 3~4월에는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함.

#### 〈협력 방안〉

- 식품(신선식품)의 경우 통관 기간이 길어지면 유통기한이 임박해 판매가 어려우므로 양국이 협의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통관 등 검역 및 통관 기간을 줄이는 협력 방안이 필요함.

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2c). 중국 코로나 검사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현황 및 대응 방안; 한국농어민신문. (2022. 4. 18.). "중국 코로나 방역에 국산 우유 수출도 묶였다."; 농민신문. (2022. 3. 25.). "중국, 비관세장벽 강화... 한국 농식품 수출 비상" 참고.

##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6. 3.). “흰우유(살균유) 중국 수출 길 다시 열려- 국내 3개 생산업체 살균유 품목, 중국 정부 등록 완료 -.”
- 전형진. (2008). “중국의 식량문제와 곡물수출 제한조치-식품 가격 안정 위해 수입축진 수출제한 조치 잇달아.” Life and Agrochemicals. 29(3). pp.26-29.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a). 2021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 및 통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b).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방법.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c). 중국 코로나 검사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현황 및 대응 방안.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d). 2021년 한눈에 보이는 중국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전망 2020.
- 미국 농무부(USDA). (2022).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사업처 양념특작부 담당자. 2021. 10. 26. 전화인터뷰 진행.
-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MS/352978/view>). (2022. 3. 25.). “중국, 비관세장벽 강화... 한국 농식품 수출 ‘비상.’” 검색일: 2022. 11. 7.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검색일: 2022. 10. 25.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44>). (2022. 4. 18.). “중국 코로나 방역에 국산 우유 수출도 묶였다.” 검색일: 2022. 11. 7.
-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15.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신문(<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651&sSiteid=1>). (2022. 3. 25.). “중국 ‘코로나 검역’ 강화... 한국식품 수출차질 우려.” 검색일: 2022. 10. 17.
- FTA 강국 KOREA(<https://fta.go.kr>). 검색일: 2022. 11. 7.
- Global Trade Atlas(<https://connect.ihsmarkit.com/gta/data-extracts>). 검색일: 2022. 10. 26.
-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index.do>). 2022년 4월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 검색일: 2022. 10. 25.
- KOTRA 해외시장뉴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4014](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4014)). (2022. 4. 15.). “中 산동성, 방역 강화 위해 비콜드체인 수입 컨테이너 화물 집중관리.” 검색일: 2022. 11. 7.
- KOTRA 해외시장뉴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3795](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3795)). (2022. 4. 1.). “4월 1일부터 수입 콜드체인 식품 베이징 진입 시 검역 강화.” 검색일: 2022. 11. 7.
- KOTRA 해외시장뉴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Sn=244&pNttSn=153619](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Sn=244&pNttSn=153619)). (2015. 7. 30.). “한국 흰 우유 대중국 수출 정식 재개.” 검색일: 2022. 10. 25.
-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 10. 25.



# KREI 현안분석

감 수 이용선 명예선임연구위원 061-820-2320 yslee@krei.re.kr  
내 용 문 의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061-820-2312 kkphil@krei.re.kr  
발간물문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95호

## 한·중 수교 30년, 농식품 교역 동향과 협력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2. 11.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1147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